현대성과 환경 위기에 관한 담론

노 윤 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환경 문제가 제기된 것은 18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작되었지만 환경 위기에 관한 본격적인 담론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20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된다.

공장 폐수로 호수와 강물이 썩고 유출된 기름으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으며 자동차와 공장 매연으로 공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토양은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열대 우림(삼림)은 벌목으로 사막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세계 각국이 적절한 대처 방안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인류 최대의 재앙으로 다가올 듯하다. 이런 현상들은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이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로 그 심각성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중대한 환경 사고로 일본의 수은 중독 사건(미나마타병)과 카드뮴중독 사건(이타이이타이병), 영국의 런던 스모그에 의한 대기 오염 사건, 인도의 보팔 화학공장 참사와 소련의 체르노빌 핵 사고를 대표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산업주의가 환경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환경 위기는 현대성을 추구한 결과

과학 기술의 발전과 풍부한 에너지 개발은 산업화를 가속시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가능케 하였으나 반면에 과소비에 따른 엄청난 자원의 남용과 각종 산업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은 1972년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경제 성장과 환경 오염이 현재의 수준(보고서 발표 당시)으로 계속된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경고였다.

이 보고서는 환경 위기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새롭게 했고 1992년 리우 정상 회담에서 환경 위기(지구 온난화)에 관한 세계적 관심사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환경 위기 사이의 인과적 상관 관계가 국제적 담론으로 제기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거론되고 있는 현대성(Modernity)에 대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대성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류 사회에 진보와 행복한 미래를 약속한다고 믿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초래한 환경 위기는 현대성에 대한 현실로부터의 비판이고 이성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의 길』(The Third Way)로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경제 성장의 붕괴, 생태학적 붕괴와 재앙, 전체주의적 권력의 성장, 대규모 전쟁(핵전쟁 포함) 등이 현대성의 위험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든스는 산업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이 현대성의 핵심 요소이며 이로 인해 생태학적 붕괴와 재앙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위험하다는 베크(Ulrich Beck) 교수의 위험 사회(Risk Society), 즉 현대성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맥을 함께한다.

환경 위기는 현대성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환경 위기에 대한 반성은 현대성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된 18세기 말 근대성의 추구가 경제적 풍요, 편리함, 여가 선용, 행복, 건강과 장수 등 오늘날 현대성의 긍정적 결과물을 가져다준 이상 현대성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과 환경의 조화(Economic Growth in harmony with Environment)'라는 이념은 현대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화두임에 틀림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의 한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어려운 이유는 성장과 환경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성장의 한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환경 위기는 현대성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환경 위기에 대한 반성은 현대성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경제 성장과 환경의 조화(Economic Growth in harmony with Environment)'라는 이념은 현대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화두임에 틀림없다.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세계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83%)은 화석 연료이므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극대화하고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세계인들의 의지가 약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수렴시키려는 생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 개념은 미래의 인류가 개발 욕구를 저해하지 않고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하는데 이는 환경 위기가 인구증가, 산업화, 경제 성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부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장의 한계' 개념은 과학 기술의 발전, 산업주의, 성장 이론이 환경 위기의 근원이라고 본다. 이를 적극 지지하는 계층이 녹색주의자들(Greens)이다. 녹색주의자들의 주장은 인류가 현재의 속도로 재생 불가능 자원(석유, 석탄, 광물)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재생가능 자원(옥토, 물, 삼림)을 남용하면 인류의 미래는 파멸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주의자가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녹색주의자는 성장의 한계란 개념으로 산업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 초 세계적으로 논의된 생태적 마르크스주의(Ecological Marxism)는 환경 위기를 좌파적 입장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 산업주의와 자본주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오코너(James O'Connor)가 있다. 한편 독일의 알트파터(Elmer Altvater) 교수는 포디즘이 주도한 대량 생산과 표준화, 산업화, 도시 집중화, 화폐만능주의 등 산업주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환경 위기에 대한 그의 이론적 대처 방안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개발 적극 추진해야

이미 산업 사회가 정착되어 문명 사회를 이룬 현대 인류가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극단의 처방으로 농경 사회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방법보다는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며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세계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83%)은 화석 연료이므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극대화하고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세계인들의 의지가 약한 것이다.